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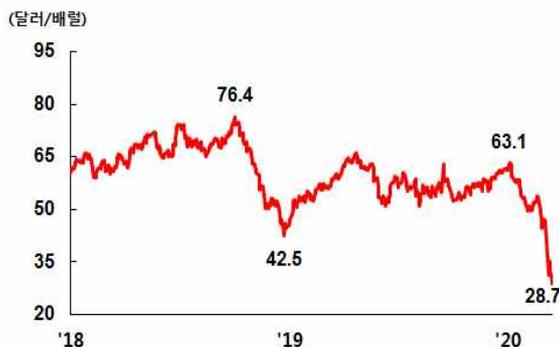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後 국제유가 급락 원인과 전망

- ◆ 최근 국제유가는 걸프전 이후 가장 큰 폭(△24.6%)으로 하락하며, 유가급락에 따른 경제불안을 의미하는 '逆오일쇼크' 우려 제기
 - 3.9일 WTI는 하루만에 전일대비 △24.6% 급락한 배럴당 31.1달러를 기록
- ◆ 저유가 장기화時 산유국發 금융불안이 국내에 전이될 가능성有

□ (현황) 국제유가는 '19년 평균(57달러)을 크게 하회한 20달러 후반대를 기록

- WHO의 팬데믹 선언(3.12일)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확대 우려, 사우디·UAE 등 산유국의 추가증산 소식(3.13일) 등으로 가격 하락국면이 지속
- ※ 국제유가(WTI, 달러/배럴) : 41.3(3.6) → 31.1(3.9) ⇒ 33.0(3.11) → 31.7(3.13) → 28.7(3.16)

< 국제유가(WTI) >



자료 : Bloomberg

< 주요 산유국의 증산 규모 >

국가	증산 규모
러시아	• 하루 1,129→1,179만배럴(20.4월~) 단기 +20~30, 장기 +50만배럴
사우디	• 하루 970→1,300만배럴(20.4월~) 3.12일 1,200→1,300만배럴로 확대
U A E	• 하루 300→400만배럴(20.4월~) 향후 500만배럴로 확대할 계획
쿠웨이트	• 향후 증산계획 발표 예정

자료 : FT, NYT

□ (원인) ①코로나19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우려 지속 ②산유국間 갈등에 따른 감산합의 결렬 등

- OPEC과 러시아는 원유수급 조절을 위해 OPEC+를 결성('17년)했으나, 최근 러시아의 감산 거부로 동맹이 와해
- 사우디가 증산 계획(하루 970→1,300만배럴, 3.8일) 발표 후 러시아도 맞대응 (1,129→1,179, 3.10일) ⇒ 산유국間 원유시장 점유율 경쟁이 본격화

< 최근 산유국間 상호 갈등 >

일 자	세 부 내 용
'20.3.5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OPEC+ 정례회의'에서 러시아의 감산 거부로 감산합의 결렬 - 러시아는 기존감산 기한 연장*, 추가 감산**에 모두 동의하지 않음 * '20년까지 하루 210만 배럴 감산 / ** '20.Q2부터 하루 150만배럴 추가 감산
3.8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우디, 증산 계획(하루 970→1,230만배럴) 및 원유판매가격 인하를 발표 - 이는 가격인하를 통해 러시아의 감산합의 복귀를 압박하기 위함
3.10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러시아, 증산 계획(하루 1,129→단기 +20~30, 장기 +50만배럴) 발표로 대응 - 美세일가스 업계의 수익 악화를 유도, 원유시장 점유율 확대를 경계
3.11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우디, 종전 발표했던 증산 규모를 확대(하루 1,230→1,300만배럴)해 발표 • UAE도 증산 계획(하루 300→400만배럴)을 발표하며 점유율 경쟁에 동참

자료 : FT, NYT

□ (전망) 국제유가 약세는 상당기간 지속 : ①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②산유국間 치킨게임에 따른 원유공급 증가 등

① (수요) '20년 글로벌 원유수요는 전년동기대비 9만배럴 감소 전망(IEA, '20.3월)

- 원유수요가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'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초

② (공급) '14년 **美세일혁명**으로 촉발된 산유국間 가격인하 경쟁*기간(20개월) 고려時 현재 저유가 국면은 상당기간 장기화될 가능성有

* 국제유가(WTI, 달러/배럴) : 107.3('14.6) ⇒ 26.2('16.2), 고점대비 75.6% 하락, 약 20개월간 지속

⇒ 최근 해외 IB는 국제유가 전망치*를 대폭 하향(Max 22.5달러↓) 조정

* '20.Q2 기관별 전망(WTI, 달러/배럴, 기준→수정) : 골드만삭스 42.5 → 29.0, 모건스탠리 52.5 → 30.0

□ (영향) 과도한 저유가 장기화時, 산유국發 글로벌 금융불안 심화 가능성有

○ (美) 석유산업의 경제적 비중('18년 GDP의 약 8%, 관련 고용 1,030만명)이 높아 저유가 지속時 경제전반에 악영향

- 현재와 같은 OPEC의 경쟁적인 원유 증산이 지속될 경우, '세일 밴드효과' (가격조정 능력)가 사라져 **중소 세일오일업체의 줄도산 가능성 점증**

* 유가가 세일가스업체의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일정구간(45~60달러)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현상

○ (중동 산유국) 원유 판매수입 감소로 유동성 감소 → 금융불안 확대

○ (韓) 원유소비국으로서 저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은 가계·기업에 긍정적, 다만, 저유가 장기화時 산유국發 금융불안이 전이되어 경기전반에 부정적

(작성자 : 경제금융팀 대리 김성민 kimhaje122@ibk.co.kr / ☎ 02-729-7385)